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정 태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 여의도 중심업무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결정·고시하였고, 이후 2012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전면개장하여 여의도를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국제금융기업 및 금융기관 유치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컨설팅회사 ‘지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금융 경쟁력 순위는 2015년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14위, 2017년 27위, 2018년 33위, 2019년 36위)

국제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여의도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국제금융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융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글로벌 금융·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